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열린 '줍깅'은 '줍기'와 환경운동 '플로깅(Plogging)'의 합성어다. 5박 6일간 제주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200kg이 넘는 쓰레기를 주운 생생한 현장을 담아봤다.



단과대학 및 사용자들의 공간 부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대학주보

잼버리 참가자 532명, 닷새간 국제캠서 체험활동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일부가 태풍을 피해 우리학교에 머물렀다. 잼버리 참가자 532명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국제캠퍼스(국제캠) 우정원과 제2기숙사에 들어와 12일 퇴소했다. 태풍으로 인한 새만금 야영지에서의 퇴소 결정에 잼버리 참가자들의 기숙사 입사절차는 급하게 이뤄졌지만, 교내 구성원들이 힘써 대응한 결과 잼버리 참가자들은 안전하게 우리학교에 머물 수 있었다. 이들은 퇴소 전까지 교내에서 다양한 실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우리학교 구성원의 환대에 감사와 만족을 표했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에서 제공받은 '국제캠퍼스 생활관 잼버리 숙박 지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학교 기숙사 입사자는 핀란드(466명) 및 필리핀(66명) 국적으로, 총 532명이 우정원 218명(남 40명, 여 178명), 제2기숙사 314명(남 157명, 여 157명)이 입사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입사 과정은 정부의 인원배정부터 기숙사 입사까지 매우 급하게 진행돼 다소 혼란이 있기도 했다. 애초 핀란드와 체코 국적 참가자의 입사가 계획되었으나, 체코 국적 참가자들은 8일 밤 기숙사 도착 후 육군사관학교(육사)에 일행이 있다는 이유로 육사로의 이동을 강력히 요청해 잼버리연맹 확인 절차를 거쳐 육사로 이동했다. 이후 자정을 넘겨 우리학교는 지방자치단체(자자체)로부터 필리핀 국적의 참가자 66명 입사를 추가로 요청받았고, 9일 새벽 2시 30분에 필리핀 참가자들의 우정원 입사를 끝으로 잼버리 참가자 입사가 마무리됐다. 전략기획팀은 입사생배정과 관련해 "(상급기관으로부터) 배정 학생 명단을 수신할 수 없어서 학생 맞이에 어려움과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연락 혼선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교직원들은 순조로운 입사절차를 위해 전력을



핀란드와 필리핀 국적의 잼버리 참가자들은 닷새간 국제캠에 머물며 실감미디어 체험, 천문대·박물관 관람,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진=기획조정처 제공)

기울였다. 필리핀 국적 참가자들의 추가 입사로 최종 입사 인원이 53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앞서 7일 우리학교가 정부에 제출한 '수용 가능 인원'인 500명을 초과한 인원이다. 이에 대해 제2기숙사 관계자는 "잼버리 수용 가능 인원은 남은 호실 수 기준이 아니라 2학기 재학생 입사 전까지의 청소 기간과 가용 인력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다소 초과한 인원엔 관해서는 입사생 수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전략기획팀은 지난 7일부터 이뤄진 정부 및 지자체 등과의 연락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잼버리 학생에 대한 기숙사 수용 통보 수신 이

후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기관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팀은 "생활관 구성원이 단결하고 외부기관 지원인력의 협조로 입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기숙사 입사 소식은 같은 건물을 사용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달됐다. 지난 8일 제2기숙사 사감실은 제2기숙사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에 "잼버리 캠프가 태풍 경로로 인해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되어 긴급하게 제2기숙사에도 약 300여 명의 인원이 입

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재학생들에게 잼버리 참가자의 기숙사 입사 소식을 알렸다. 이어 사감실은 채팅방에 "급히 결정된 사안"임을 알리고 "기숙사 편의시설 사용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힘든 여정을 겪은 타국의 친구들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반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안내하며 재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제2기숙사와 우정원, 학생회관에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 우정원 앞 오르막길에는 잼버리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각 기숙사 건물 입구에는 기

숙사, 학생식당 등 교내 시설 이용을 안내하는 지도가 환영 문구와 함께 부착됐다.

일부 시설에 한해 재학생 이용이 제한되기도 했다. 제2기숙사 남자동 1층 취식실은 기흥구 보건소에서 파견된 '잼버리 의료 지원팀'이 상주해 사생들의 이용이 제한됐다. 제2기숙사 사감실은 카카오톡 공지 채팅방에 이와 관련해 "전자레인지 및 정수기는 각종 휴게실, 프린터기 및 세탁실카드 충전은 여자동 로비에서 이용 부탁드립니다"라며 사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학생회관 내 학생식당은 잼버리 참가자들로 이용 대상이 한정됐고, 교직원식당만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인원배정부터 입사까지 단 사흘 만에 이뤄졌지만, 우리학교의 환대에 잼버리 참가자들은 만족감을 표했다. 핀란드 스카우트 유닛 리더 이다 씨는 새만금 야영지 퇴소부터 우리학교로의 입사 과정에 대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우리는 이곳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에 대해 "우리를 환영해주고 잘 안내해줘 도움이 됐으며, 점심도 맛있었다"라며 "태풍을 피해 실내로 와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두 명이 한 방에 배정되었으며, 화장실이 깨끗하고 방 상태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다 씨는 예정된 교외활동으로 절 문화 체험, 시티투어, 케이팝 콘서트 등이 있음을 언급하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일부 필리핀 국적의 참가자들은 사색의 광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우리학교의 아름다운 풍경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닷새간 국제캠에서 머물며 교내 여러 시설을 방문했다. 이들은 실감미디어 체험, 천문대·박물관 관람,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우리학교 교수들의 특별 강연을 듣기도 했다. 태풍의 영향을 고려해 교내 모든 활동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